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428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낮아져 임한다.....	3
808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
8888 사랑의 힘의 교환 과정.....	7
6130 그리스도가 임한 이유. 공황의 역사.....	8
5832 예수님의 탄생. 빛. (성탄절).....	9
7872 인간 예수의 투쟁.....	10
6045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	12
7083 고난의 금요일.....	13
7986 사랑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켰다.....	15
6810 3 일 후에 부활.....	16
4997 죽음이 극복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18
6512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19
7446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임재.....	20
8019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21
4474 행하는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연합.....	23
3317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	24
6378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25
2752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	26
7472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하나님의 진지한 음성.....	28
7272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스스로 그의 심장을 열 때까지 그들을 뒤따른다.....	29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낮아져 임한다.

B.D. No. 8428

1963년 3월 3일

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나와 아주 가까이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로써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너희에게 믿지 못할 일이 되었느냐? 너희는 왜 최고로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너희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너희에게 낮아져 임했다는 것을 의심하느냐?

이 선물은 단지 내 온전함을 증명하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제한이 없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선물해 주기를 원함을 증명한다. 왜 너희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랑과 권세를 부인하느냐? 그러나 너희 모두는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이 나를 증거한다.

모든 것이 그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에 관한 지식은 숨겨져 있다. 내가 이 지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함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일이 어렵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대한 올바른 짐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성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나를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 잘못 된 생각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적하는 세력은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나에게 대한 잘못 된 전적으로 왜곡 된 관점을 너희에게 주려고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나와 올바른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뤄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직접 말하는 일이 더 이상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고 단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너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기 원하는 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될 것이다.

비록 너희에게 아직 깊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한 권세에 의해 창조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너희와 같은 존재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권세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와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의 작품이 너희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지혜가 충만한 창조의 권세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야만 하는 이 권세가 피조물들을 생성되어 나오게 했다. 말하자면 인간이 창조의 왕관이다. 왜냐면 다른 어떤 창조의 작품도 이성 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창조주 자신도 모든 온전한 가운데 이런 성품을 가져야만 함을 그가 생각할 능력이 있고 자유롭게 원하는 최고의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창조 된 작품이 그의 창조주보다 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 된 자로써 자신을 창조한 분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아버지로 여기고 인정을 하는 자녀가 자유의지로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냐면 자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속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와 이런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뤄야 한다.

너희가 연결을 이루면 너희 스스로 겉으로 보기에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와 너희를 분리시키는 불순물들을 스스로 제거한다. 그러면 너희는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먼 곳에서 구하지 않게 되고 너희는 진정한 자녀가 행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너희의 생각을 통해 너희 안에서 내가 임재 하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너희에게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단지 내가 계속하여 너희에게 임재해 있기를 내가 계속하여 내 음성을 통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인 빛과 능력과 다시 말해 너희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너희가 정함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과 내가 너희에게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을 나로부터 받기 원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너희가 한때 거부했던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리면, 너희 안에서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불타오르고 나를 권세에 끌어 들여서 너희가 전적으로 다시 나에게 속하게 되고 이제 자신이 스스로 측량할 수 없이 축복 되었던 너희의 원래는 성품에 도달한다.

이것이 내가 음성을 들려주는 목적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이런 거리를 줄이고 결국에 가서는 없애야 한다. 너희는 아버지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나 자신에게 내 임재를 긴밀하게 구하면, 진실로 내가 내 귀와 심장을 닫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에는 너희가 너무 작은 존재로 본다고 믿지 말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아버지로 남을 것이다. 아버지의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는다.

자녀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떠났을 지라도 그러나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나에게 의해 한때 생성되어 나온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뒤따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면,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다.

너희는 한때 빛과 능력 가운데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 너희는 다시 빛과 능력 가운데 거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B.D. No. 8082

1962년 1월 19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 그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다. 그의 근본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사랑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해 옮기는 쉬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되게 하는 무한의 세계로 자신을 사랑의 힘을 발산하는 그러나 항상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임의대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혜와 권세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가 정해지게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동안에는 사랑의 속성에 헤아려 볼 수 없는 동안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인정하는 최고이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특성으로써 사랑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런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는 능력이 발산되어 나온 것이다.

너희의 원래 성품 자체도 사랑이다. 그러나 존재의 속성을 증명해 주는 생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것은 그리고 창조될 것은 어떤 것도 계획이 없이 생성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지혜가 충만하게 생각이 되었고 모든 것이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존재는 번성한다. 자신으로부터 같은 존재를 생성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형체를 부여한다. 창조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의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남는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역사해야 할 능력이고 능력으로 남게 된다. 이 능력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방해를 받으면,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사랑의 원칙이 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인 즉 하나님이신 존재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저항은 실제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 편에서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으로써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을 벗어 나게 된다. 자기 자신이 반대로 된다. 그는 실제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발산되어 나온 자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 자신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존재로 발산되어 나오게 한 분에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동시에 빛이기 때문이다. 이 빛은 사람들의 사랑이 연약한 동안에는 아주 적게 사람들에게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없다. 단지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해진 것이 진리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빛을 준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넘치게 온전한 존재에게 이제 그가 영원한 사랑으로 깨닫기를 시작한 존재에게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영원한 능력의 중심이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발산되어 나온 능력의 불씨로써 그의 아주 작은 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원래의 불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의 의지가 선하고 그들이 생성되어 나온 존재의 사랑의 빛에 자신의 심장을 다시 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자신을 자신의 비전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한 존재들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 관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사랑인 존재의 최고로 큰 사랑의 증거이다. 이를 통해 다시 사랑이 원래의 요소에 합당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피조물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정해진 바대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원한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는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이는 나를 위해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참여한 나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창조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은 사랑의 힘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내 끝없는 사랑이 첫 번째 존재를 충만하게 채웠고 이 능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능력을 나타내야만 한다.

이런 능력의 나타남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은 성품을 가진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이와 다른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근원적인 능력이기 때문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단지 최고로 온전한 것만 발산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근본적인 속성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가지는 무제한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진리와 권능이 사랑이 부족함이 있는 것을 생성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그러면서 진리와 권능이 사랑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어서 최고로 온전하게 창조하는 모든 선행조건이 갖추어 지게 된 것이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가 최고로 온전한 분에게서 발출되어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가 영원한 시간 동안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돌려 드리는 일을 해왔던 것처럼 나에게 계속하여 사랑을 돌려드리는 단 한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바로 나에게 사랑을 드리는 일을 나 자신이 축복되게 느끼는 것과 같이 이 일이 너희에게도 축복된 느낌을 준다.

우리는 사랑의 갈망가운데 측량할 수 없이 충만하게 서로 교류했다. 너희는 내 심장을 향한 길을 항상 또 다시 항상 택했고 우리의 연합으로 인한 행복은 측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사랑의 힘이 너희 안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너희가 한때 내 사랑으로 비추임에 너희 자신을 달고 나를 떠남으로써 이런 축복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너희에게 빛이 없어서 너희가 깊은 곳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영원에 영원 동안 행복하게 해준 이 사랑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전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너희가 창조 되는데 참여한 자가 나를 보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들이 나를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자신의 존재들에게 자기를 주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인정하게 요구했다. 이로써 존재들은 그들의 빛과 그의 온전함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빛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을 무한하게 축복되게 해주었던 사랑의 빛과 능력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이제 이 존재들에게는 중단이 되게 되었다. 내 끝없는 사랑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이제 다시 모든 창조물들을 생성해서 깊은 곳으로 타락한 존재들을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해 이 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창조를 하여 이 존재들은 이제 이 빛을 영접해야만 한다.

만약에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을 열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끝 없이 긴 시간 동안을 어두움 가운데 거해야만 한다. 한때 내 빛이 전달자였고 상상할 수 없이 축복된 존재했던 그가 내 반대 극으로 변한 것은 엄청난 일로써 어떤 사람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리던 최고의 축복을 자유의지로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로 높은 곳에서

최고로 낮은 곳으로 타락했다. 그의 성품이 전적으로 반대로 바뀌게 되어 그는 악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악을 창조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창조된 모든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는 빛나는 충만한 빛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창조된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 나는 이런 혼란을 허용했고 존재들이 나를 떠나갈 때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았다. 왜냐면 언젠가는 모두가 내 사랑의 빛을 받기 위해 나에게 자신을 열게 되는 일에 나는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무제한의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임한 이유. 공황의 역사.

B.D. No. 6130

1954년 12월 9일

내가 전적으로 공황히 여기는 가운데 노예가 된 이 땅의 인류를 보았고 나는 그들의 큰 위험을 보았다. 그러나 큰 위험은 인류 자신의 잘못이었고 나는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집에 짓눌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다. 내 사랑이 아주 강해 고통받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고 내 사랑이 아주 커서 사람들을 죄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위해 다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내가 이 땅에 임한 일은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과 공황의 역사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전에 나에게 대적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빛과 힘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인류는 어둠 속에 너무 깊이 갇혀 완전히 무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으로부터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고 이런 상태는 가장 큰 불행한 상태였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을 영원히 다시는 풀어주지 않을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주인에게 포로로 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또한 너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내 사랑의 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내 대적자와 싸울 준비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임했다. 왜냐면 신성이 이 싸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싸움을 이끌었고 사랑이 이제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지 사랑을 무기로 삼은 한 사람이 대적자와 싸웠다.

그러므로 사랑이 싸움을 이끌고 사랑이 내가 이 땅에 임하게 했고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혼이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모든 감각으로 나와 연합을 추구하고 자신 안에 빛의 혼을 가졌던 사람이 타락한 형제들을 도와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다시 높은 곳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게 했다. 온전하게 머문 존재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들을 다시 온전하게 되도록 돕기를 원했다.

사랑 자신이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땅으로 임했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긴급한 도움의 요청에 나 자신을 닫지 않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구원자이자 구세주로 임했다. 인류가 완전히 멸망받지 않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이 타락한 때가 되었다.

이로써 오래 전에 예언 된 일이 실현되었고 빛이 이 땅에 임했고 어두움 속을 비추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위로부터 온 구세주를 깨달았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빛. (성탄절)

B.D. No. 5832

1953년 12월 21일

너희 모두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 모두는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모든 일을 행한다. 왜냐면 내가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내 대적자가 너희를 영원히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사랑의 자녀이고, 사랑은 자신의 소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왜 내 대적자의 세계의 한가운데이고, 나와 분리된 내 피조물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임했는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대적자는 내 몫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했고, 영원히 내 몫에 속한 존재를 영원히 나와 분리된 가운데 유지하기를 원했고, 내 피조물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피조물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려면, 내가 그들을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구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임했고, 내 사랑이 나를 불행하게 된 존재들에게 향하게 했고, 그들에게 다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기를 원했다. 내 사랑은 타락한 존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한 방법을 찾았다.

나 자신이 깊은 곳에 머무는 모든 혼들을 위해 내 대적자에게 빛을 진 모든 죄짐을 짊어졌고, 내 대적자에게 구매 가격을 지불했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했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드렸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사람 안으로 임했다. 왜냐면 희생의 역사는 단지 사람이 수행해야만 하고, 단지 사람들 앞에 눈에 띄게 진행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 자신이 빛을 갠았어야만 했고, 그런 속죄를 사람들이 수행해야만 하게 되었다면, 이 땅의 삶이 끝없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했을 것이고, 내 사랑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으로 임했고, 사랑이 인간의 형체를 취했고, 내 사랑의 영이 일회적인 공훈의 역사를 목적으로 야기 예수 안에 거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이 짊어지고 수행하기 원했던 역사가 너무 큰 일이어서 단지 내 사랑의 힘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이웃을 위해 고통받고 죽을 수 있기 위해 이런 사랑을 넘치게 획득했고, 그는 나와 함께 구속사역을 완수했다. 또는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이 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면 예수는 자신 안에 모든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 그러나 이런 신비를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을 통해 자유의지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을 이룬 사람 안으로 영원한 사랑이 육신을 입은 이유를 내 피조물들을 향한 끝없는 내 사랑에서 찾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단지 그런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을 수 있었고, 특별한 출생과 그에 수반되는 현상들을 통해 나 자신이 올바른 형체를 택했다는 것을 사

람들에게 증명했고, 내가 단지 죄 없는 형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형체는 또한 이제 스스로 자신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담는 그릇이 돼야만 하고, 그릇으로 머물러야만 했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형체에게 역사하고, 내가 형체를 벗어나도록 시도했다. 인간 예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을 추구해야만 했고, 인간으로서 죄짐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랑이 그를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게 했고, 그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구속사역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전에 가장 깊은 어두움이 이 땅에 퍼져 있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이 닿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권세자에게 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빛이 위에서 내려 왔고, 이 빛을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어두움 속으로 빛을 비쳤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억하고, 내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게 하고, 자신을 그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예수가 걸어간 사랑과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투쟁.

B.D. No. 7872

1961년 4월 14일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했고 내가 원래 초기부터 나를 채우고 있는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이 사랑은 단지 영원한 아버지에게 향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현재의 너희들이 더 이상 믿기를 원하지 않는 너무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고 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와 함께 이 땅에 사랑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빛을 포기해야만 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빛의 광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몸을 통해 혼을 괴롭히는 모든 성숙하지 못한 영들과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야만 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영화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을 달래려고 노력해야만 했고 사랑을 통해 내 안의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만 했고 이런 존재들이 자신의 갈망을 버리고 혼의 갈망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존재들이 영화가 되게 하고 혼과 하나가 되게 해야만 했다.

이 투쟁은 진정으로 쉽지 않은 투쟁이었다. 왜냐면 내 인간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과 같은 욕망과 욕망의 성취에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위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인간들과 다른 성정이 아니었다. 유혹하는 세상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혹했지만 내 혼이 단지 그런 유혹과 거리를 두었다. 왜냐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세상 유혹이 어떤 위험을 주는 지를 깨달았고 내가 또한 인간 예수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는 자신의 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혼의 욕망을 따르고 모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하기 위해 내 투쟁은 종종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게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었고 아버지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고 나를 점점 더 채워주었고 인간 예수인 내 안에서 역사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인류가 어떤 고통

을 겪고 있는 지를 깨달았고 이로써 인류에게 같은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이유를 알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살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고 그들이 사랑의 삶의 효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이런 효력을 나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내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다. 왜냐면 내가 사랑의 힘이 역사하게 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의 권능이 역사하게 했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충만했다. 왜냐면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께 충성했고 원래에 창조된 영들의 무리가 아버지를 떠날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컸고 이 땅으로 임했을 때에도 이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이 땅의 내 모든 삶은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였다. 이로써 곧 몸도 또한 이 사랑에 순종했고 혼이 몸을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혼이 몸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일은 잘못 된 일이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악한 영들은 나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고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나를 놓아주도록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내 도움을 약속했고 내 안에 거하는 큰 힘으로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오직 큰 사랑의 힘이 단지 내 구속역사가 이뤄지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악한 영들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사랑인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나를 따라야 하고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 안과 밖의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너희의 힘을 증가시키는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 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구속역사의 은혜로 진실로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는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 의지가 너무 약하고 너희에게 힘이 없다. 나 자신이 내 구속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는 내 대적자를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싸웠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싸움에서 이겼고 너무 연약한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완전히 영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영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영들의 권세자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즉 너희는 모든 세상의 욕망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너희의 몸과 동시에 혼을 영화시키고 몸과 혼이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이 일을 혼자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힘을 받고 너희가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해 단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힘의 제공은 너희 안에서 사랑이 타오르게 했고 최고 수준의 화염으로까지 타오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통해 너희 안의 모든 악한 영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너희가 어떤 유혹에도 저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너희가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편에 서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

B.D. No. 6045

1954년 9월 9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견딘 일을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은 언젠가 너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내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은 죽음의 밤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희생을 드렸다. 이런 역사는 실제 인간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의 사명을 믿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모든 힘과 확신을 요구하는 인류를 위한 속죄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치른 내 희생적인 죽음을 광신적인 인간의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 예수가 이런 특별한 힘을 어디에서 얻었는 지를 모르고 무한한 사랑이 인간 예수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인간 예수가 단지 사랑을 통해 과도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는 인간의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원하여 이런 고통을 감당했다.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예수의 곁형체가 초인적인 고통을 견딜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왜냐면 사랑이 곁형체를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으로서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견디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영원에 영원을 거쳐 너희가 견뎌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를 떠나 타락한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희의 타락으로 줄어들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고 내 사랑이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이에 대해 자신이 속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랑이 한 사람 안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고 이로써 한 사람이 너희의 죄를 위해 견뎌야만 하는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했다. 너희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해야 했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생명을 잃었다. 너희가 이제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려면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이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다.

(1954년 9월 9일) 그는 너희를 위해 너희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그분 안의 나 자신이었다.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인내하고 의식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통을 참았는가! 그가 어떤 영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냈는가! 그는 한 사람을 위해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어깨에 메고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했다.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초인적인 것이었고 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뛰어 넘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오늘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일이 언젠가 아주 밝은 빛처럼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내 위대한 사랑이 너희를 붙잡지 않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너희를 축복되게 한다면 이런 밝은 빛이 너희를 바닥으로 쓰러지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찬양과 감사와 뜨거운 응답하는 사랑을 너희 안에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내 사랑과 긍휼의 구속역사를 모든 규모로 헤아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빛의 광선이 너희가 저세상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숙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너희 안에서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이로써 너희가 내 나라에서 모든 죄짐을 벗고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동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인간의 죽음보다 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난의 원인은 모든 인류의 큰 죄짐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는 인간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내가 거하도록 제공했고 이로써 나 자신인 사랑이 너희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B.D. No. 7083

1958년 4월 4일

내가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너희를 향한 내 끝없는 사랑을 항상 생각하라. 이웃의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을 알았던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견뎠던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큰 죄짐과 도움이 없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이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사랑의 삶의 결과였고 그러므로 그는 인류를 긍휼히 여겼고 돕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결과로 나 자신이 그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그가 나 자신의 걸형체가 되어 나를 섬겼고 나 자신이 큰 죄짐을 사하는 구속역사를 그 안에서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이 땅의 삶이 이런 사명을 합당하게 성취시켰고 그의 이 땅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길이었고 위험과 고난이 먼저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이런 위험과 고난은 죄악 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자체가 그의 혼에게 준 것이었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어두움의 나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을 담고 있는 이 땅의 형체는 먼저 고난과 위험을 통해 정화가 돼야만 했고 혼에게 붙어있는 정욕과 욕망에 대항해 계속해서 싸우는 일을 통해 정화가 돼야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임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고 내가 그 안에 전적으로 모두 거했다. 즉 내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유의 사명을 행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진리를 선포했고 사랑의 복음을 설교했고 그들이 그들의 죽음 후에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그들이 가야만 하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공훈의 역사로써 그의 가장 혹독한 고난의 길인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의 길을 마쳤다.

한 사람이 실제 이런 사명을 성취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사람 안에 거했고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능력이 있었고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사랑이 단지 그가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었을 지라도 그러나 이 부름은 단지 그 안의 신성이 그에게 행하게 강요하지 않고 인간 예수가 전적인 자유의지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증명하고 자신 안의 사랑이 그가 실행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사랑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의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나 자신이 공훈의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사랑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혼이 견뎌야만 했고 동시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했다.

그의 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왔고 이 땅의 어두움이 혼에게 이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크게 기뻐한 내 아들이었다. 그는 모든 생각과 모든 그의 사랑으로 나에게 향했고 그는 죄악 된 인류 가운데 살았다. 그의 혼은 쉬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구했다. 그의 사랑이 내가 그 안에 제한이 없이 부어주게 강요했다. 이로써 인간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전적으로 질서에 합당하게 이뤄졌다. 왜냐면 나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것과 연결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전적으로 사랑이 아닌 인간의 걸형체를 거하는 장소로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숙하지 못한 입자는 인간 예수의 고난의 길을 통해 영화되었고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해 죄짐을 해결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사랑으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나는 그를 영원히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걸형체로 택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만든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를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신성이 되면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항상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도운 내 끝없는 사랑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빛에 나라에 들어가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깨달음의 빛이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지면, 너희는 비로소 이런 공훈의 역사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신도 이 역사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는 이 역사를 현재의 일로 체험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비로소 한때 나를 떠난 큰 죄로 인해 길을 잃었던 사랑의 자녀들을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 내 끝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이런 사랑이 이웃을 돕기 위해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도록 그를 움직였다. 왜냐면 그가 이웃의 큰 영적인 위험과 그들 불행과 자신들의 힘으로는 내 대적자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없는 무기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사람들의 상태와 그런 상태의 원인과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가장 밝은 빛을 주었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그는 또한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이 스스로 맡은 사명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 땅으로 임해 인간의 곁형체 안에 거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곁형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곁형체를 형성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나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한이 없게 크고 무한한 영인 나 자신이 전적으로 모두 인간의 곁형체를 채워줄 수 있게 했고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 즉 내 사랑의 힘과 내 원래의 입자가 위로부터 온 순수한 혼을 담은 인간의 형체 안을 전적으로 채웠다. 이 혼은 타락한 영들을 내 나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내 공의가 요구한 대로 타락한 영들의 큰 원죄를 위해 구속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인간 예수는 빛의 혼이었고 그는 내가 머물기 위해 선택한 인간의 형체였고 내가 그 안에서 너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성취했다. 인간 예수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왜냐면 그의 혼이 자신이 거해야만 하는 곳의 어두움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의 고난의 길이 측량할 수 없게 고통이 큰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점에 도달했고 나에게 적대적이었고 한때 영적인 존재들을 깊은 곳까지 끌고 간 자의 권세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영원한 신성 자신이 그 안에서 큰 죄짐을 탐감하는 역사를 완성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를 인정하는 일이 비로소 사람을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곁형체로 예수를 인정하는 일은 사람들이 이전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인정이 단지 입으로 말하는 죽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이런 생명력이 있고 확신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너희는 끊임없는 사랑의 삶을 산 인간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 너희에게 단지 의지가 있다면, 그가 또한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그를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너희의 전적인 구원을 보장해줄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가 이 땅으로 임한 큰 의미와 그의 사명과 그 안에 내가 육신을 입은 비밀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볼 수 있는 곁형체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한한 영으로서 나를 너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모두 비취줄 수 있는 곁형체를 택했고 이로써 너희가 내 구속 역사를 인정하고 인간 예수의 희생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원래의 죄가 해결되기를 갈망하고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도피하면, 너희가 이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너희의 죄가 진실로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빛과 축복의 내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인간 예수 안의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임했고 사랑이 인간 예수를 채웠고 사랑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가장 어려운 희생을 치렀고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아멘

3 일 후에 부활.

B.D. No. 6810

1957년 4월 20일

너희 사람들이 내 구속사역을 어떻게 고백하는 지가 너희가 죽음 후의 삶을 믿을지에 결정적이고 무덤으로부터 부활과 저세상으로 가는 일을 믿을 지에 결정적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인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3일 후에 부활을 통해 최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부활은 이 전에 내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확인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 후에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사람이 내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제 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실제 이런 내 부활을 의심하고 단지 전설로 안다. 내 부활은 증명해줄 수 없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단지 믿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믿음도 또한 내 구속사역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았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이다.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내 육체가 볼 수 있게 무덤으로부터 일어난 일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 겉형체인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전적으로 영화되었다는 의미이다. 혼이 입은 것은 영적인 옷이었다. 내가 죽음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모든 놀라게 하는 일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영적인 옷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내 이 땅의 삶은 사람들에게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줘야 하고 나는 내 모든 가르침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과 연결시켰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본다. 내 제자들 자신도 믿음이 연약했고 내가 나를 내 원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들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의 믿음은 내가 죽음을 다스리는 자임을 믿을 정도로 아직 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3일 후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한 말을 믿지 않았다.

나를 가장 긴밀하게 따랐던 그들 모두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들이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만 했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들을 돕기 원했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삶과 죽음의 지배자라는 증거를 주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혼들에게 해답이 되는 일인 혼은 죽을 수 없고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따라 저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줬

다. 혼은 육신을 떠난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써 뒤에 남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자유 때문에 그에게 증거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동시에 부활하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의 입자들이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일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들에게 3일 후에 내 부활을 알려 주었고 그들의 성장 정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육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충분한 다른 이유들을 찾았고 그러므로 이런 일이 믿음의 강요가 되지 않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사람들이 단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육체도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더 이상 자연의 법칙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 왜냐면 육체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의 죽음 후에 육신의 입자들이 혼과 동화될 수 있는 성장 정도에 희귀하게 도달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단지 연약하거나 또는 잘못 된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아직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모든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없애 버릴 것이고 그는 항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구속사역과 내 부활을 그들에게 믿을 수 없게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모두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3일 후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 영이 그에게 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내 올바른 인도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찾은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약속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벗어났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도피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 순간부터 이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그는 이제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체를 잃을지라도 그의 혼이 존재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혼이 단지 죽음과 같은 상태로 저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덤이 혼을 가두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무덤의 바위를 치우지 않으면, 혼은 자신의 무덤 속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세주는 모든 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언젠가 모든 혼들에게 부활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부름을 듣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무덤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무덤의 어두움이 혼으로부터 사라지고 혼은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무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도 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극복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B.D. No. 4997

1950년 11월 9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박힐 때 사탄의 사슬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고,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사탄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를 잃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피를 통해 예수는 전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 힘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성한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대적자로부터 구매했다. 그러므로 인류가 처한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인류에게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류는 그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의 피로 구매 댓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설명을 통해 너희가 희망이 없게 사탄의 권세에 넘겨지지 않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 모두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그를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더 이상 사람의 의지에 강요할 권세가 없고, 모든 면에서 사람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권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죽음은 극복되었다. 죽음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이고 멸망과 어두움의 상태이다. 죽음은 극복되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을 정복했고, 자신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 죽었기를 원하고, 예수가 또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렸기를 원한다. 사탄은 아직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사탄에게 대항할 도움을 구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 사탄의 권세가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인 예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었다면,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랑은 예수에게 나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묶임을 받은 한 혼을 구하는 일이라도 대적자로서 사탄에 대항해 싸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진지하게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사탄은 단지 자원하여 사탄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이 사탄의 힘보다 천 배나 더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이 위험에 처한 가운데 단지 자신의 눈을 예수에게 향하는 모든 묶임을 받은 존재에게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다.

사탄은 실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사탄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고 자신의 양들을 원수로부터 지키고, 예수에게 대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의 양무리에 속한다. 예수는 자신의 양

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러므로 한 양이 심장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면, 그는 양들 중 하나라도 대적자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무한히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나와 하나가 되었고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세와 힘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나에게 희생제사로 드렸다. 너희가 너희의 원수에 대항하여 도움을 청하면, 그는 또한 너희의 부름을 듣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혼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을 것이다. 너희의 의지가 단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 그에게 향해야만 한다.

아멘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B.D. No. 6512

1956년 3월 29일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피하지 말고 가야만 한다. 왜냐면 이 길이 유일하게 너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다. 이 길은 골고다를 향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위해 가신 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만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십자가의 길로 그를 향한 길로 하나님의 구세주의 길로 가려 하면, 그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연약해질 때 그의 손을 잡고 돕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축복의 문을 통과하려면, 너희는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너희 자신이 그려볼 수 있게 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고백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동시에 생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야만 하고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머물러야만 한다. 그의 고난이 너희 심장에 전달돼야만 하고 그의 고난이 너희 안에서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너희의 고난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일이 너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는 그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너희가 생명력 있게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가장 큰 영적인 체험에 대해 같은 행함을 요구하는 이런 한가지의 행함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해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신 스스로 모든 고요함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 그의 죽음까지 동참하며 구원의 역사를 생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 과정을 생각으로 떠 올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그에게 향하고 그와 함께 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의 구원사역의 큰 비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를 향한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더 이상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의 구원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은 단지 이에 대한 말로 머무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안에서 이 과정이 생명력이 있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견딘 극심한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주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는 너희에게 빛을 주고 복된 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그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비로소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자의 크나 큰 사랑에 너희의 혼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더 이상 그를 놓치려고 하지 않게 된다. (1956년 3월 29일) 그러면 너희가 골고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와 함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혼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혼이 진정한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이고 혼을 위해 죽은 분 때문에 혼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또 다시 아주 깊은 내면으로 묵상해야만 하고 사람이 항상 또 다시 그의 사랑의 사역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의 삶과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예수의 사랑의 사역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그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사랑이 이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재촉한다. 사랑은 십자가의 과정의 고난을 자신이 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활용하고 동시에 자신이 이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할 자세를 갖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임재.

B.D. No. 7446

1959년 11월 4일

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축복될 수 없다. 이를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무리에 속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약한 믿음과 무능력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다. 그는 이 영으로 전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안에 내가 임재할 수 있었다. 내 사랑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므로 그 안에 나 자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먼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임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임재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존재가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에 알맞은 이로써 내 임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체험의 연속으로 이뤄진다. 왜냐면 너희는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이 항상 더욱 비취질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될 것이다. 나는 능력과 빛으로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와 나 사이의 이런 관계가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없다. 단지 사랑 안에서 너희 믿음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왜냐면 너희는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이 사랑을 너희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는 영원한 사랑인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자주 느낄 수 없는지 생각하라. 비록 내 사랑이 항상 너희를 향해 있을지라도 내 사랑이 역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만약에 너희 스스로 사랑에 응답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이로써 내가 느낄 수 있게 임재할 수 있게 나에게 허용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하라.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사랑의 역사가 부족하면, 단지 너희가 스스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사랑을 행하게 내면으로부터 역사하고 사랑을 행함을 통해 너희는 나를 너희 가까이로 이끌 것이고 육신을 입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임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내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 너희는 내적으로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된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에게 내 임재가 더 이상의 심스럽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긴밀 함으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굳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B.D. No. 8019

1961년 10월 15일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의 길은 너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는 성장 과정에 마지막 짧은 단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하는 자유의지를 되돌려 받고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이 이 과정을 종료시킬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또는 영원한 기간에 대한 너희의 운명을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가지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날 때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이 땅에 삶을 활용하지 않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새롭게 가장 굳은 형태를 입을 수 있다.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는 이런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시킬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내가 내 피조물이 내 자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들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한때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고도 깊은 곳으로 빠진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한 곳에 내가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하고 돕고 나를 너희에게 계시를 해주어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내가 너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제한이 없는 분량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로부터 떠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정할 수 없는 내 대적자와 싸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혼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충동과 정욕과 싸워야만 하고 너희가 성장하려는 이 땅의 삶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요청을 해야만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영원히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완성을 이루는데 능력이 부족하게 될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상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능력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가 너희의 죄짐을 용서해주기 원하고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나를 다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갔던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아버지의 집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너희가 단지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는 진실로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자신의 피로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일을 통해 타락한 너희의 원죄를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이런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 이런 사랑을 드렸고 그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게 했다.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즉 그 안의 나를 인정하면, 너희의 죄가 예수를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부르는 자는 나를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보게 된다.

아멘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이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웃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가까이에 거할 수 없고, 너희에게 임재할 수 없다.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살고, 단지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웃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얼마나 무력하게 되고, 너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얼마나 적게 일할 수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권세가 크고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창조할지라도 너희에게 빛과 힘이 없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희의 이 땅의 모든 노력은 공허하게 된다. 왜냐면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이룩한 모든 것을 남겨둬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역사가 영원에까지 너희를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영원히 얻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사랑의 태양 광선 아래 너희 자신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빛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갈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의 갈망을 항상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나의 나라의 후보자로 만들기 원하고, 너희를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 너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로써 나 자신이 사랑인 나를 너희에게 이끌면,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이뤄진다.

시험을 해보라.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는 의지를 드러라.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이 나로부터 받아,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선물을 나눠주라. 이웃 사람이 너희에게 사랑의 선물을 구할 때,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라. 너희의 자기 사랑을 뒤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게 되면서, 너희는 성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살 것이고, 나의 임재가 너희를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임재로 나의 말씀 때문에 이웃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웃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이 계명을 유일한 계명으로 성취시키면, 너희는 진실로 나의 임재를 보장받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너희는 영의 나라를 얻은 것이다.

너희가 축복받기 원하면, 너희는 이 계명대로 행해야만 한다. 너희는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서로를 도와야만 한다. 이로써 내가 또한 같은 정도로 너희를 도울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이웃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할 때, 비로서 내가 너희 가까스로 다가 갈 수 있다. 너희는 모두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줄여주고,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 힘으로 계속하여 동일하게 나의 피조물들에게 흘러 가고, 이 땅의 사람들의 운명을 인도한다. 나는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표를 사람들의 영의 성장으로 삼는다. 그럴지라도 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과 이로 인한 결과에 참여한다. 사람이 자신을 나에게 드린다면, 나는 항상 지속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게 그들과 동행하거나 또는 그가 나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느끼지 못하게 그와 동행한다. 나의 피조물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길에서 만나는 기쁨이나 또는 고난을 항상 이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운명으로 인해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이 운명을 정했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한 동안 이 운명을 고통스럽게 느낀다 할지라도, 이 운명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너희에게 향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사랑은 계속하여 똑 같이 머문다. 나의 긴밀한 사랑이 모든 일어나는 일과 모든 창조물의 작품에 근거가 되는 나의 구원 계획에 나타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나에게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창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창조물은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나의 사랑으로 모든 창조물이 생성되게 한 것처럼,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얻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개관해볼 수 없는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이 땅의 삶은 나의 사랑에 의해 인도를 받아 너희가 나와 다시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 삶의 모든 각각의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사랑이 너희를 항상 영원히 감싸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한다. 너희는 심지어 고난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세상적인 실패 가운데, 질병과 모든 종류의 위험 가운데,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 만약에 나의 사랑이 이런 일들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깨달았다면,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일을 너희가 피하게 해준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잃게 될 위험에 있다. 나를 신뢰하라. 중단되지 않는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 너희 자신을 제한이 없이 나의 인도에 맡겨라. 모든 세상의 위험을 내가 돌보게 하라. 항상 단지 너희 혼의 구원을 생각하라. 너희 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의 나라를 추구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한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시간이 얼마 없고, 너희는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영적인 추구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내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길을 알고, 사람은 나의 뜻대로 이 길을 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모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정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그러므로 너희의 두려워하는 염려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서로 간에 충만한 사랑으로 대하고,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곳에서 도우라. 너희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나의 도움을 신뢰하라. 왜냐면 나의 사랑은 항상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나의 사랑은 너희 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상으로 너희를 오랫동안 위험에 빠져 있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운명이 건디기 힘들다고 생각될지라도 너희는 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나의 뜻이 아니라면, 실제 너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수 있느냐? 모든 일어나는 일의 근거는 나의 지혜와 사랑에 의해 결정되는 나의 뜻이고, 바로 악한 일도 만약에 너희가 나의 뜻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것에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견딘다면, 나의 사랑이 너희 혼을 위해 좋은 일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나의 사랑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왜냐면 이 사랑은 영원 전에 그랬던 것보다 절대로 절대로 적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너희 삶을 살면서,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의 사랑의 능력을 너희 안에 영접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하라. 왜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게 할지 또는 받을 수 없게 할지는 전적으로 너희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인도 받고 돌봄 받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나를 느끼고 모든 일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너희의 삶은 훨씬 더 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연결이 된 가운데 머물라.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길을 위한 능력을 받을 것이고, 무슨 일을 당하던지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 삶의 마지막까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B.D. No. 6378

1955년 10월 15일

인내하며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너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겁지 않다. 누구도 십자가의 무게 아래 기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가 단지 한 분을 부르고 그가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요청을 받는다면, 들어주는 한 분이 십자가를 지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과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자신 위에 어떤 주님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자주 십자가의 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런 십자가의 짐을 통해 사람들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더 쉽게 가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왜냐면 그들을 위한 행복한 삶을 언젠가 그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인정을 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너희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이 길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너희의 운명에 대해 화를 내고 반항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눈에 띄게 빠르게 도움을 받고 모든 짐을 벗어나면, 너희가 이미 내 대적자의 먹이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너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나에게 대항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고 나 자신이 십자가의 무게 아래 실신했다. 왜냐면 십자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로써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무겁지 않게 했고 너희가 언제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운반자로서 너희 곁에서 함께 간다. 모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너희가 너희의 짐을 덜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게 길을 가고 내 도움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항상 더 무겁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자신의 십자가의 무거움을 정한다. 사람은 분노와 오만한 생각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자를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는 항상 단지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앞서 길을 갔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요청한다. 나는 인간 예수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서 내 목표를 성취시켰다. 아버지는 내 몸을 소유했고 빛과 힘으로 나를 채워주었다. 너희의 길도 또한 같은 목표로 인도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너희도 측량할 수 없는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일에 십자가의 짐을 지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혼자 갈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동반자인 내가 있다. 너희가 단지 의식적으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내 도움을 청하면, 나는 항상 너희를 지원하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도록 돕는다.

그러나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쉽고 평온하고 너희가 십자가의 짐을 짊어 짐으로써 아주 오랫동안 빛을 받는 일을 방해하는 혼의 분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주 작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분순물을 너희의 혼으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면, 너희에게 제거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고 이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나는 십자가의 짐을 통해 너희를 나에게 부르기를 원한다. 너희 자신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다. 나는 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너희는 가장 큰 내 사랑의 행동을 단지 적게 생각한다. 십자가가 너희 자신을 짓누르면, 너희가 비로소 너희 눈을 나에게 돌리고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너희가 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간다. 너희가 내 뜻에 복종하고 내 십자가의 길과 헤아릴 수 없는 내 고통과 그러나 너희를 위해 희생한 내 사랑을 기억하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게 된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

B.D. No. 2752

1943년 5월 24일

나에게 사랑으로 순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 사랑이 너희의 높은 성장에 좋은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 사랑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인내심으로 가장 힘든 일을 견디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나의 도움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과 나의 의지는 단지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역사하고, 나의 지혜가 너희를 위한 방법과 수단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내가 단지 너희의 영적인 안녕에 관심이 있고, 너희의 영적인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희에 대해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라. 어린 자녀들처럼 되라. 저항하지 말고, 길에 돌이 많고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잘못된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항상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너희의 혼은 언젠가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고통을 받게 한 일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는 영원에 비해 짧은 이 땅의 삶이 무엇이나?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왜 절망을 하느냐?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해 고난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고난 받는 일을 진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돕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길은 가시밭 길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넓고 갈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인도하지 않고 나의 대적자의 진영으로 인도한다. 내 사랑은 너희가 피할 수 없게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밟는 일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나를 신뢰하라. 자원하여 너희를 내 손에 맡기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라. 용기가 없게 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너희가 모든 고통에서 깨달아야 할 내 사랑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인내하며, 너희가 단지 믿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나의 도움을 기다리라.

너희가 연약해지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라. 단지 생각을 높은 곳의 나에게 보내라. 나의 은혜에 너희를 의탁하라. 나는 진실로 너희를 위로해주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혼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이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에게 드리는 긴밀한 기도가 혼에게 주는 힘을 느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단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외롭지 않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항상 너희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성숙해지도록 너희의 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몸이 도움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돕는다. 나는 불멸한 것을 돕는다. 왜냐면 불멸한 것이 나에게 속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받아야 한다. 너희의 이 땅의 고통은 저세상의 고통에 비해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심하게 대하면서 너희가 저세상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너희는 언젠가는 단지 사랑이 내가 이 땅에 큰 고난을 보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를 위해 얻기 위해, 너희가 나의 나라에서 축복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기 위해, 너희가 힘든 학교를 가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짐이 아직 너희를 압박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너희를 향한 너희의 아버지의 사랑을 남김없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로하며 말한다: 나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

이로써 나의 사랑이 너희를 사로잡게 하고, 네가 너희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 천 배로 보상할 수 있게 하라. 나를 도피처로 삼으라. 이로써 내가 너희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게 하고, 절망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의 시간이 되었을 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너희의 혼을 나에게 부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하나님의 진지한 음성.

B.D. No. 7472

1959년 12월 6일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고 말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귀환의 시점은 너희가 스스로 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하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자신을 형성하게 너희를 자극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빛이 없이는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는 일은 빛과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귀환에 걸리는 기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귀환을 다시 끝 없이 길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를 막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하고 너희에게 너희의 퇴보가 주는 큰 고통과 처량함을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다. 나는 이에 대비해 내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나는 너희가 모든 진지함과 열심으로 내 나라를 추구하게 하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는 언젠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묶인 상태에서 위험과 고통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면, 빛과 자유 함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했다. 너희는 무관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마치 끝나지 않는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너희의 매일을 살지 말라. 너희에게 단지 짧은 시간만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시간이 너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함을 생각하라.

이 시간은 실제로 너희의 아버지를 향한 유일하게 너희가 축복될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급히 달려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함을 생각하라. 이런 짧은 시간을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해 활용하라. 너희가 곧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왜냐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시간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의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이 시간은 너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추구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단지 아주 짧다.

그러나 너희의 혼을 전적으로 영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전적으로 실패해 새롭게 새 땅의 창조물 안으로 묶임을 받으면, 너희의 새로운 싸움은 끝 없이 긴 시간이 걸린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 자신을 내 형상에 합당하게 조성하고 형

성시킴을 위해 살 수 있고 너희가 내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넘치는 은혜임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로 이를 원해야만 하고 너희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만 한다. 그는 진실로 목표에 도달하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정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너희의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을 정한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너희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돕는다. 너희가 단지 그를 부르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이로써 너희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날마다 너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기 위해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가 즉시로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능력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짧은 시간 안에 영원히 빛과 자유 가운데 축복되기 위해 너희의 걸형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실패하면, 무관심하게 큰 위함 가운데 있는 너희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세상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영원히 자유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종말이 임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기대하지 않게 임할 것이다. 왜냐면 아무도 내 의지가 정한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진지하게 언제든지 자신이 삶에서 부름받을 때가 옴을 알고 살아야 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미 이루고 그의 이 땅의 삶을 위한 능력을 자신의 혼의 형성을 위한 능력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게 살아야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었고 예수는 내 걸형체였다. 나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었고 나는 그와 연합이 되고 그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 안에 있었고 그는 내 안에 있었다. 그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는다. 그는 그의 죽음 후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귀환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스스로 그의 심장을 열 때까지 그들을 뒤따른다.

B.D. No. 7272
1959년 2월 1일

너희는 내 사랑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인 것처럼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머문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나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내 사랑도 저항을 받는다. 내 사랑은 저항에 강요로 대처하지 않고 내 사랑은 너희가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고 자원하여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너희가 이성과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자유의지

가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해야만 하고 이로써 내 사랑의 빛에 너희 자신을 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사랑의 빛에 너희 자신을 열지 않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외면하는 동안에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역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너희에게 향하고 너희가 거부하는 동안에도 너희를 뒤따르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랑은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과 연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자유의지로 연합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은 언제든지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끊임없이 너희를 뒤따르고 너희를 마찬가지로 사랑을 구하도록 정해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진정으로 가장 풍성하게 너희 안으로 흘러 들어 갈 것이다.

너희 생각과 의지를 나에게 돌리는 일에 내가 성공하면,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께 너희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고 창조물을 통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존재에게 너희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서서히 이런 존재를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서 타오르게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아버지로 소개할 수 있다. 아버지는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스스로 내 사랑에 감동을 받고 너희가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얻은 것이다. 너희가 단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너희 심장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나를 너희 심장에서 몰아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의 생각이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향할지라도 너희가 한번 아버지로 깨달은 하나님을 너희가 스스로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사랑이 단지 한번 너희 심장 안에서 타오를 수 있게 되면, 내 사랑이 너희를 포로로 붙잡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서 나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 너희가 가야만 했던 길은 먼 길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한 존재로서 나를 한번 깨달았다면, 너희는 곧 너희 성장 과정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고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붙잡을 수 있고 너희는 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나를 향한 생각을 떠날 수 없고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나에게 향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내 사랑을 갈망하고 내 사랑이 확실하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연결이 이미 이뤄진 것이다. 이런 연결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목표이고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서 불타오른 것이고 내 사랑이 붙잡은 것을 내 사랑은 영원히 더 이상 놓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귀환하게 하는 역사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원래의 입자도 사랑이고 이 사랑이 한번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불씨에 점화가 되면, 사랑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이런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고 사랑의 불씨가 내 사랑의 불과 접촉하면, 사랑의 불씨가 점화되어 영원한 사랑의 불과 하나가 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사랑이 연합을 시도하고 연합을 이루기 까지 쉬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이런 사랑의 길을 갈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 자유의지가 제거해야만 하는 우리 사이가 분리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너희가 돌아서서 나에게 너희 자신을 열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심장을 나에게 열어 내 사랑이 이제 가장 밝은 빛으로 비취 주고 내 사랑의 불이 너희를 완전히 영화시키고 너희가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아버지인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내 사랑이 너희를 뒤쫓는다.

아멘